지역축제의 브랜드화

이학래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연구원
bluedark001@korea.kr

총 99개의 축제가 열리고 있는 호남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마다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이미지 개선의 수단으로 개최되고 있다. 독특한 지역문화의 발굴보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응집력 등을 유도해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지역축제를 브랜드화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래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6년부터 전국의 지역축제 중 관광 상품성이 뛰어난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호남권에서는 2012년 현재 광주광역시 14개, 전북 47개, 전남 38개 등 총 99개의 축제가 열리고 있다.

지역 이미지 향상

지역축제는 축제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 유지와 함께 지역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축제의 유형은 개최자, 소재, 목적 및 구성 형식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며 문화예술, 전통문화, 지역특산품, 지역관광자원 등을 주제로 많은 지역축제들이 열리고 있다.

'광주 7080 충장축제'는 도심공동화로 침체되어 가는 구도심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예술을 주제로 진행되는 축제이며, '남원 춘향제'는 전통문화를 주제로 춘향과 몽룡의 순수한 사랑을 널리 알리기 위한 축제이다. 또한 이러한 축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축제의 주제가 확실하고 관련프로그램들의 구성이 일관된 주제로 설정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인식시켜 준다는 것이다. 만약, 축제의 특징이 뚜렷하지 않고 프로그램도 천편일률적이며 다른 축제 사례를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면 소모성 행사로 변질되어 버리거나 지역주민